



20일 울산문수수영장에서 열린 제80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200m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박태환이 자신의 기록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또 아시아新

400m 이어 200m서 1분46초26 '금'
올해 세계 랭킹 17위 → 2위 고속 도약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이틀 만에 다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박태환은 20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진 제80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200m 남자 대학부 결승에서 1분46초26에 터치패드를 두드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작년 8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1분46초73의 아시아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땀던 박태환은 1년여만에 자신의 기록을 0.47초 줄였다. 세계기록은 당시 금메달을 따냈던 마이클 펠프스(미국)의 1분43초86이다. 지난 18일 자유형 400m에서 3분43초

59를 찍으며 아시아 기록 경신에 성공했던 박태환은 이날 또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며 베이징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한 단계 밝혔다. 이날 기록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한라배수영대회에서 기록한 1분48초10보다 무려 1.84초 빠른 것이다. 올해 세계 랭킹에서는 17위에서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1위는 펠프스(1분45초71)이고 박태환에 이어 파울 비더만(1분46초59·독일), 패트리 퍼피(1분46초67·호주), 그랜트 해켓(1분46초68·호주)이 뒤를 잇고 있다. 이를 전 자유형 400m 때 스피도가 새 로 출시한 '레이저 레이서(LZR Racer)'

원단으로 만든 반신수영복을 입었던 박태환은 이날은 전신수영복을 입었다. 깊게 심호흡을 한 뒤 4레인 출발대 위로 올라간 박태환은 0.66초로 가장 빠른 출발 반응을 보이며 입수했고 초반부터 엄청난 스피드를 내며 가장 먼저 앞서가기 시작했다. 50m 지점에서 25초47로 턴을 한 박태환은 26초49의 3번 레인 입담(인하대)을 1초 정도 앞서며 득주 체제를 갖췄고 이후에도 거침없이 앞만 보고 나아갔다. 100m 지점에서 52초36에 찍으며 기록 경신을 예고한 박태환은 150m 지점에서는 세계 대회 때(1분19초51)보다 약간 늦은 1분19초54로 들었지만 특유의 막판 스피드가 남아있었다. 기록 단축을 바라는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프로펠러처럼 팔을 휘젓고 발을 구르며 뻘이 나간 박태환은 힘차게 터치패드를 두드렸고 전광판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빙그레 웃음지었다.

최경주 '명품 샷' 대회 3승



20일 2008 SK텔레콤 오픈에서 함께 16언더파 272타로 우승을 차지한 최경주(나이키골프)가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KPGA SK텔레콤 3년만에 우승
16언더파...2위 강경남과 4타차

세계랭킹 6위인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한 차원 높은 기량을 과시하며 한국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 우승컵을 3년만에 되찾았다. 최경주는 20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7천27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없이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05년에 이어 3년만에 우승컵을 탈환한 최경주는 12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여덟번 출전해 세차례나 우승을 차지하는 각별한 인연을 과시했다. 각각 두차례씩 우승한 박남신(49·테일러메이드)과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를 제치고 대회 최다 우승 선수 가 된 최경주는 작년 10월 신한동해오픈 이후 6개월만에 국내 대회 통산 13번째 우승컵을 수직했다. 작년 한국프로골프 다승왕(3승)에 올랐던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강성훈(21·신한은행) 등 '젊은 피' 두명과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 동반 플레이에 나선 최경주는 힘과 기교에서 월등한 실력차를 입증했다. 2번홀(파4)에서 세명 동반 버디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팽팽할 것 같은 승부는 250야드 짜리 파3홀인 3번홀(파3)에서 최경주 혼자 파를 지키고 강경남, 강성훈이 나란히 보기로 흠아우하면서 기울기 시작했다. 4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 2타차로 달아난 최경주는 6번(파4), 8번홀(파3)에서 징검다리 버디에 이어 9번홀(파5)에서 버디 퍼트를 잡아넣으면서 4타차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강성훈과 강경남은 최경주에 비해 아이언샷 정확도와 그린 플레이에서 열세인데다 최경주의 플레이를 보러온 관중들의 매너없는 관전 태도에 시달리느라 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다. 사실상 준우승 싸움으로 전개된 후반에 2개의 버디를 잡아낸 강경남은 2언더파 70타를 적어내며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2위를 차지했고 이븐파 72타에 그친 강성훈은 10언더파 278타로 4위로 내려앉았다. 최경주와 함께 초청 선수로 출전한 레터드 쿠엔(남아공)은 3언더파 69타를 치며 3위(11언더파 277타)까지 순위를 끌어 올려 US오픈을 두차례나 제패한 저력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프로는 갤러리의 '비매너'도 감수해야'

"캠핑언조에 들어오면 그런 것도 감수해야 한다." 최경주는 20일 SK텔레콤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갤러리들의 '비매너'에 시달렸던 후배들에게 단호한 충고를 건넸다. 1천여 명에 이르는 갤러리가 따라 다닌 이날 최경주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과 강성훈(21·신한은행)은 그렇게 알아도 박찬 최경주와 우승경쟁 못지 않게 갤러리들과 기싸움을 벌이느라 진땀을 흘렸다. 대부분 최경주의 '명품샷'을 보러왔다

최경주, 후배들에게 충고

는 갤러리들은 샷이나 퍼팅이 끝나면 강경남과 강성훈에겐 신경도 쓰지 않고 마구 움직였다. 심지어 강성훈은 벙커샷을 하려다 한 관중이 무심코 떨어뜨린 골프 볼이 벙커로 굴러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 어드레스를 풀기도 했다. 강성훈의 백을 맨 친형 강성도(29)씨는 마구 움직이는 갤러리를 향해 "어르신들, 볼 좀 칠게요"라고 통사정을 하는 광경도 벌어졌다.

두 선수가 애처롭게 여겨질 정도였지만 최경주는 단호했다. "선수가 볼을 친다고 해서 지나던 자동차나 비행기가 다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도 미국에서 처음 갔을 때 그런 일 많이 당했다"고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최경주는 "미국에서 갤러리들이 막 움직일 때 그러지 말라고 해보아 그들이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라며 "그런 곳에 처음 갔을 때 그런 일 많이 당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큰 선수가 되려면 외부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충고였다. /연합뉴스

KIA, 한화와 주말 2연전...최희섭 때문에 웃고 울다

20일 악송구 '으악'



19일 3점포 '역전'



'빅쇼이' 최희섭 KIA 타이거즈를 웃기고 울렸다. 지난 19일 빅쇼이의 역전 3점포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던 KIA 타이거즈가 20일에는 최희섭의 아래에 눈물을 흘렸다. KIA는 20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한화 이글스와의 5차전에서 선발 리마가 1회 최희섭의 실책 이후 페이스가 흔들리며 1과 3분의 1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3-7로 패했다. 1회 KIA는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내주면

서 불안한 출발을 했다. 1사 1루 상황에서 1루수 최희섭이 클락의 땅볼을 잡아 2루수 발데스에게 악송구하면서 주자 올 세이프. 이후 리마는 볼넷과 폭투로 1점을 내렸고, 이범호의 땅볼 때 1점을 더 허용하며 0-2로 끌려갔다. 선취점을 허용했던 리마는 2회 시작과 동시에 볼넷과 안타를 허용하며 다시 무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다. 이때 또 한 번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 이영우의 안타 때 중견수 이용규의 부정확한 송구가 나오면서 3루로 뛰어든 이희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결국 리마는 3번 타자 클락에게 3점 홈런을 맞으면서 조기 강판됐다. 최희섭에 시달

렸던 리마는 명예회복을 위해 출격했던 경기에서 불명예스런 강판을 당하며 팀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KIA는 3회말 얻은 3점이 이날 경기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선두타자 차일목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김선빈과 이용규의 연속안타로 2점을 따라갔고, 김주형의 유격수 플라이 때 3루 주자 이용규가 뛰지 않을 것처럼 상대 수비의 관심을 따돌린 뒤 홈을 파고들면서 3-6으로 3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추가 점수가 터지지 않으면서 전날 경기에서 화끈한 타격쇼를 선보였던 KIA는 끝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회원권
최저 '특별회원권'이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한 경기장 및 모어레스토랑을 손수 확보한 하일입니다.
승수에 일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 (062)351-0095

신지애 '무적' 과시 시즌 2승

이일희와 점전 끝 1타차 우승

KLPGA 레이디스 챔피언십

신지애(20·하이마트)가 시즌 2승째를 거뒀다. 신지애는 20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골프장(파72·6천320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2008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3억원)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잡아내며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라운드까지 이일희(20·테일러메이드)에 2타 뒤진 2위에 그쳤던 신지애는 이날 치열한 점전을 펼친 끝에 1타 차로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 6천만원을 손에 넣었다. 시즌 상금 1억413만4천500원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사흘 내내 보기 없이 이날 1개에 버디 11개로 13언더파를 치는 완벽한 플레이가 돋보였다. 13번 홀(파3)까지 이일희와 공동 선두를 달렸던 신지애는 14번 홀(파4) 약간 내리막 버디 기회를 살리며 단독 선두로 뛰어 나갔다. 경기가 끝난 뒤 신지애가 말했다 "다른 선수를 잡으면 스스로 실수를 범하거나 무너졌을 상황"이었지

만 생애 첫 우승에 도전장을 던진 이일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15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다시 단독 선두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관록의 신지애 역시 만만치 않았다. 15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다시 균형을 이룬 신지애는 결국 17번 홀에서 단독 선두 자리를 꿰차며 승기를 잡았다. 이일희가 17번 홀(파4)에서 약 2m 버디 기회를 놓친 뒤 이어 약 50cm 정도 짧은 파 퍼트마저 홀을 돌아 나와 보기에 그친 것이다. 상대 실수로 흔들리지 않고 단독 선두에 오른 신지애는 17, 18번 홀(파3)을 모두 파로 막아내며 지난 해 12월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3개 대회 가운데 2개를 휩쓸며 올해도 여전히 '신지애 시대'를 예고했다. 지난 해 신인왕 김하늘(20·코오롱)은 9언더파 207타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최종 합계 8언더파에 주기로 했던 '육토상'은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최사인 우리투자증권에서 9언더파를 친 김하늘과 7언더파의 윤재영(21·LIG)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또 갤러리들의 요청에 따라 아쉬운 준우승에 그친 이일희에게도 '육토상'을 주기로 했다. 육토상은 우리투자증권에서 8가지 기능을 통합한 자산관리 상품 '육토'에서 이름을 딴 상으로 함께 8언더파 선수에게 '육토 CMA' 계좌 1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이다. /연합뉴스